

(주소) 16488 /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 (전화) 031-231-8575 (팩스) 031-231-8588

배 포 일	2024.11.14.	쪽수	사진	기관 도메인주소	자료 문의
보 도 일	배포즉시				
청년들과 함께하는 환경정화운동 '경기옛길 쓰담쓰담'		1	3	www.ggcf.kr/	부서 : 문화유산팀 담당 : 임진영 전화 : 031-231-8576

청년들과 함께하는 환경정화운동 '경기옛길 쓰담쓰담'

- ▶ 경기역사문화유산원 경기옛길센터, 탐방 프로그램을 통한 친환경 ESG 실천
- ▶ 천주교 수원교구 안양1지구 청년들과 함께하는 자원봉사 활동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 경기옛길센터가 지난 11월 9일(토) 친환경 탐방프로그램 <쓰담쓰담>을 천주교 수원교구 안양1지구 청년연합(이하 참가단체)과 함께 진행하였다.

쓰담은 '쓰레기 담기'의 준말로, 플로깅을 대체하는 순우리말 조어이다. <쓰담쓰담>은 경기옛길을 탐방하면서 참가자들이 환경 정화 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ESG경영 실천의 일환이다.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 보호 활동으로서, 단체 또는 개인이 환경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활동 후에도 자발적 쓰담활동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사회공헌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번 <쓰담쓰담>은 경기옛길 영남길 제9길 죽산성지순례길(안성시 일대) 중 일부 구간에서 진행되었다. 죽산순교성지에서 출발하여 일죽면의 넓은 들을 지나 죽산성당까지 이르는 총 3.5km의 거리를 도보로 걸으며 쓰담 활동을 펼쳤다. 이 길은 천주교 탄압이 극심했던 시기, 수많은 천주교인들이 박해로 인해 처형당한 가슴 아픈 역사를 담고 있는 길이다.

참가 단체의 박태현 스테파노 지도 신부는 "하느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후 '보시니 좋았다' 말씀하신 세상이, 이제는 그 아름다움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우리가 보호해야 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쓰담은 세상을 위해, 하느님을 위해 한 걸음 나아가는 값진 시간이었음을 기억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며 청년들에게 환경보호 실천의 중요성을 전했다.

참가단체의 정록희 율리아 청년연합회장은 "최근 들어 기후변화, 환경오염과 관련된 이슈를 계속 접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의무감도 느꼈지만 선뜻 혼자 활동을 실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프로그램을 함께 하면서 쓰담활동을 통해 환경보호를 실천할 수 있어 좋았다"며, "함께하는 청년들에게도 환경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 기쁘다. 신앙적으로도 하느님께서 창조해주신 세상을 가꾸고 일궈야하는 신자로서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날 프로그램은 청년 45명의 참여해 약 1시간 동안 버려진 담배꽂초와 방치 쓰레기를 줍는 등 환경 정화 활동을 수행하였다.